

민주, 전주를 재선거 무공천... 지역정가 '슬렁'

당내 입지자들 반응 엇갈려

지역 정가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전주를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발표하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무공천 소식이 발표되

있는 전주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는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됐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

운 반응,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 등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거를 준비해 온 이덕춘 변호사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생이 우선이라는 당의 방침에 수긍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다"며 이번 선거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전주에 공을 들여 온 양경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몇 십년간을 민주당원으로 살아왔는데 당의 무공천 결정에 반대하겠느냐"라며 "탈당 같은 일은 없다. 꾸준히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 불출마로 가닥 잡아
양경숙 의원 "당 무공천 결정 반대 안해"
임정엽 전 완주군수 "고민 중" 입장 표명

자마자 당 소속 후보군이 탈당이나 '손절' 타이밍을 찾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무공천 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반색하며 호남의 여당 교두보 마련에 절호의 찬스로 활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12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내년 4월에

현·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공천을 기다려야 온 입지자들은 당혹스러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공천을 기다려야 온 입지자들은 당혹스러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김경민 전북도 역사문화교육원 대표와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장은 전주를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뉴시스

“특별자치도, 강원은 되고 전북 안되는건 논리 모순”

민주 신영대 의원 "다음 논의 때 법사위원 설득하면 통과 가능"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론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

정읍시의회, 내년도 시 예산안 승인

1조1193억5536만원 확정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안건 심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소관으로 2022년도 기금운

용변경계획은 2,379억876만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3,058억 5,508만4,000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197억9,750만6,000원을 승인했다.

2023년도 예산은 85개 항목을 조정해 58억8,525만1,000원이 삭감된 1조1,193억5,536만3,000원을 확정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도 첫 회의는 2023년 1월 11일에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북환경청, 고농도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특별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일 실시했다.

전북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 배출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점관리기 필요한 주요 산업·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제철·제강업, 화학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시설 부식·마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사업장 폐

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감시장비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염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이동차량 드론 등으로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심사업장을 선정하고, 점검인력을 중점 배치, 연소가스 분석기,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을 이용한 배출농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오염도 검사기관(ETI 시험연구원)과 협업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불법 배출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도의회,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해당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의회 의원과 간부 공무원의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 정립과 4대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최선광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최선광 강사는 “건전한 성인지 가치관 정립을 통해 조직의 직장 내 폭력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조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4대 폭력 예방을 조직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 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공식사회와 정치권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 결과 브리핑. 12일 진행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른쪽)이 도의회 기자실에서 2023년 전북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의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